

국제석유시장의 최근동향과 향후전망

李 紀 勳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연구원)

I. 油價動向을 보는 視角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蠢을 범하지 않고 巨視的인 안목을 가지고 微視的인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사물의 要諦를 파악하는 길이다. 油價동향도 이런 관점에서眺望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배럴당 1달러 정도의 수준에서 백 여년간이나 극히 안정되었던 國際原油價가 70년대에 두차례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상승하였고 가격의 움직임도 극히 불안정적이 되었다. 그 여파로 세계경제는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80년대초반 세계경제는 高油價로 촉발되었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응으로 인해 高金利, 달러貨強勢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적 무역이나 금융거래의 불균형은 한층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구조조정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85년 이후 油價폭락을 필두로 국제금리나 달러貨價値가 급격히 하락하는 이른바 “3低현상”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켜 각국의 정책대응이나 구조조정을 힘들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균형이나

이로 인한 국가간의 마찰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확실성요인에 대해 각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신속히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경제와는 별도로 최근 油價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산비가 中東産의 경우 배럴당 1달러에 불과하고, 총공급능력이 수요를 하루 1000만배럴 이상 소화하는 공급과잉상태인 石油의 가격이 배럴당 20달러를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 OPEC(石油輸出國機構)라는 거대한 카르텔의 담합에 의한 세계적인 독과점가격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OPEC의 담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油價수준이 변동된 것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70년대는 OPEC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결속력이 강하여 談合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油價大引上に 성공한 시기였다면, 80년대 초는 OPEC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데다 油價폭등에 따른 수급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OPEC의 談合에 의한 市場支配력이 약화, 油價가 완만한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였다. OPEC의 談合이 붕괴되어 나타난 것이 85년말~86년초의 油價대폭락이었으며, 이제 나머지 80년대는 油價폭락에 따른 수급조정과 OPEC의 再담합에 의한 새로운 독과점가격 형성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회복국면에 접어든 國際原油價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느냐는 것은 OPEC이

얼마나 잘 담합하여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독과점 가격을 형성·유지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의 추세는 OPEC 내부의 담합은 물론 OPEC 외부 즉 非OPEC산유국과의 담합도 증시되고 있다.

그런데 80年代의 국제석유시장은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이 아니라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해지고 수요측면의 힘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石油시장의 향방을 논할 때, OPEC 이야기를 필두에 두는 것은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은 單一集團으로서 OPEC만큼 세계 석유시장에 영향력이 큰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도 그렇수 밖에 없는 것이 석유수요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기껏해야 1년에 예상치를 하루 100만배럴 이상 벗어나는 일이 드문 데 비해 世界石油생산의 1/3, 世界石油교역의 2/3를 차지하는 OPEC의 공급이나 수출은 마음먹기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루 500~1000만배럴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으로 油價의 향방을 예측한다는 것은 OPEC의 石油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한다는 것과 상통하는데, OPEC 내부에서도 이란, 이라크와 같이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도 있고, 경제여건이 서로 달라 이해가 상충되는 요소가 많은 집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견하기란 극히 어렵고, 개인의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만큼 油價豫測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가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OPEC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은 전혀 엉뚱하기도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세련된 西歐기업가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는 하여 관심을 끈다.

II. 油價인상 발판 마련한 81次 OPEC 총회

1986년 7월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까지 폭락하였던 국제原油價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게 된 계기는 지난 86년말에 열렸던 80次 OPEC 총회이다. 이때 OPEC는 금년 상반기 산유량을 하루 1580만배럴로 감축하고 基準油 公示價를 배럴당 18달러로 하는 國際油價制를 2월부터 전격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일부 관측통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OPEC 각 회원국들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자국에 할당

된 생산쿼터를 준수하였으며, 公示價 이하의 할인판매도 자제해 왔다. 특히 사우디는 供給調整國(swing producer)의 역할을 다시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油價회복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이러한 OPEC의 노력에 힘입어 油價는 86년 7월을 底点으로 꾸준히 회복되었다. 87년 6월 OPEC 총회 직전에 WTI나 Brent 같은 현물유종의 가격은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하였으며, OPEC産 原油의 현물가격도 公示價를 일부 상회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87년 6월 25~27일에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열렸던 81次 OPEC 총회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油價안정에 대한 자신감과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단기에 합의를 도출하였고, 아울러 향후 公示價인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81차 총회의 주요합의사항의 골자는 첫째, 현행 18달러의 國際油價制를 금년 하반기에도 유지하되, 둘째, 금년 하반기 OPEC 생산한도는 당초 3/4분기에 1660만배럴, 4/4분기에 1,830만배럴로 늘리려던 것을 1,660만배럴로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OPEC이 시장관리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OPEC가 하반기 생산한도를 하루 1,660만배럴로 책정하게 되면, 이라크나 UAE 등의 상습적인 쿼터 초과생산을 감안할 경우 실제 생산량은 3/4분기에는 1750만배럴, 4/4분기에는 1,800만배럴 수준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예상되는 OPEC산 석유에 대한 세계수요와 대충 맞아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OPEC가 4/4분기에 생산한도를 당초 계획대로 1,830만배럴로 책정했을 경우 실제 OPEC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油價는 다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OPEC의 전략은 현재의 石油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公示價의 인상을 추진한다는 이란, 알제리 등 派의 주장에 많이 치우쳐 있다. OPEC의 목표가격은 18달러가 최고수준이 아니라, 최저수준(18 \$ as a floor not a ceiling)이라는 아가자데(Agagadeh) 이란 石油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OPEC은 수급을 타이트하게 하여 現物油價가 公示價를 상회하도록 함으로써 石油購買者들이 公示價를 적용한 6個月 이상의 장기계약을 선호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III. 88년에 公示價 20달러 가능성 높아

OPEC가 금년 하반기 산유량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한 데다 때마침 페르시아灣의 긴장이 한층 고조됨으로써 國際石油市場에서 現·先物油價가 일제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商品去來所(NYMEX)에서 WTI 現物價는 7월 10일에 배럴당 21달러를 넘어서 21.33달러를 기록, 최근 1년 반만에 최고 시세를 나타냈으며, 中東産 두바이油는 17.6달러, 北海産 브렌트油는 19.75달러에 거래되었다.

이러한 現物油價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하절기에 소비국들의 石油비축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페르시아灣의 긴장고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노르웨이, 中共 등 非OPEC 산유국들이 OPEC의 감산정책에 협조할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OPEC의 감산합의가 준수될 경우 公示價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物油價가 연말까지 꾸준히 강세를 지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OPEC의 산유량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5월중 OPEC 산유량은 하루 1,725만배럴, 6월에는 1,740만 배럴로 생산한도인 1,580만배럴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각국 쿼터증가분까지 반영되고, 9월이후 이라크의 파이프라인원공에 따른 증산분(하루 50만배럴)까지 추가되면 산유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 중 OPEC산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油價가 상승하면 과거에 으레히 그러했듯이 OPEC회원국들이 쿼터이상으로 초과 생산하는 사례(cheating)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PEC산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를 이라크나 UAE 같은 나라가 독식할 경우 카타르, 가봉 등 小産油國들도 쿼터이상으로 증산할 가능성이 크며, 쿠웨이트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면 사우디의 供給調整者(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도 무색해지게 되어 油價는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OPEC으로서 최악의 경우로서 그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으로 봐서는 現物油價의 대체적인 흐름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하다가 3/4분기 말을 전후하여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연말경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

상이 우세한 편이다. 가격면에서는 下半年中 WTI와 같은 現物油價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이며, OPEC原油 現物價는 公示價를 1달러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시장여건전개로 미루어 오는 12월 9일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OPEC은 현재 배럴당 18달러인 基準油 公示價를 88년부터 배럴당 20달러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몇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여건이 OPEC의 油價인상을 가능케 할 정도로 OPEC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둘째, 이란, 알제리 등이 18달러가 최고가격이 아니라 최저가격이며,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油價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로 기울고 있고, 셋째, 사우디도 油價回復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넷째, 달러貨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서 油價가 상승되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금번 총회에서 OPEC는 달러貨 價置의 하락이 산유국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보전방법에 관해 OPEC의 經濟委員會(Economic Commission Board)가 연구검토하여 次期 12월총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石油決濟通貨를 다른 강세통화로 변경하는 문제는 달러貨가 여전히 國際貿易去來의 基軸通貨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며, 달러貨 가치하락으로 인해 美國 이외 지역의 石油수요증가를 야기하고 있고, 中東原油가 바터(barter)거래되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혹은 달러貨價置가 다시 상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인해 금년 12월 총회에서 채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증장기 展望

앞서 살펴 보았듯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油價는 暴落 뒤의 조정국면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의 정도나 기간은 OPEC이 내부적으로 또는 非OPEC산유국들과 얼마나 담합하여 새로운 汎世界的인 독과점가격을 형성하고 지속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油價회복노력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적으로 볼 때, 世界石油市場의 여건은 OPEC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자유세

계의 石油수요는 그동안의 감소추세를 벗어나 향후 年平均 1% 내외의 완만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非OPEC산유국의 石油공급은 지금까지의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OPEC 石油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先進石油소비국들도 油價폭락이나 폭등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식, 油價안정을 회구하고 있다.

OPEC는 이러한 시장여건개선에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產油量통제정책을 계속하여 油價의 단계적인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OPEC는 油價의 급등이 세계석유수요의 회복을 저해하고 非OPEC산유국의 공급증대를 야기하여 세계석유공급과잉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油價폭락을 재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급한 油價인상은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石油예측기관들의 油價전망을 보면 아래 <表>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2~3년간은 油價가 배럴당 20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모두 이번 81次 OPEC총회 이전에 나온 것이므로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때 다소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금년 말경에 OPEC가 基準油 公示價를 배럴당 20달러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展望値들은 배럴당 1~2달러 정도 상향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原油價의 상승속도는 점차 가속화하여 오는 90년대 중반에는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世界石油需要는

꾸준히 回復될 것인 반면 非OPEC산유국들의 石油공급은 감소됨에 따라 世界石油의 供給過剩現像이 크게 해소되고 아울러 OPEC의 세계석유시장점유율도 크게 높아져 카르텔로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V. 맺는말

石油問題를 둘러싼 전망은 빛나가가 일쭤였다. 지난 70년대에 두차례의 석유위기가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최근의 油價폭락 또한 그러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비록 현재 세계 석유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석유시장의 흐름은 이와 달라질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듯이 油價豫測이 OPEC이라는 자율적인 집단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정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석유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美·蘇등 강대국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페르시아灣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란·이라크전쟁 자체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OPEC의 와해 또는 초강경정책의 선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一國의 피에까지 비유되는 石油資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世界석유시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表 - 1> 展望機關別 油價展望

(單位: \$/B)

	油 種 別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WEFA	OPEC平均輸出價(f. o. b.)	28.09	13.81	15.72	17.23	18.74	21.23	23.72	25.62
	WTI 現 物 價	28.00	15.18	17.00	18.50	20.00	22.00	25.00	26.88
DRI	世 界 平 均	27.58	14.48	17.52	18.05	18.96	-	-	-
IMF	12大產油國平均輸出價	27.16	13.08	15.00	15.47	15.93	16.41	16.90	-
OECD	OECD平均輸入價(f. o. b)	26.45	14.04	17.63	18.00	-	-	-	-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987.

DRI, European Review, June, 1987.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987.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87.

〈表 - 2〉 自由世界 石油需給 展望

(單位: 만B/D)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消 費						
O E C D	2,941	3,055	3,092	3,151	3,199	3,214
開 途 國	1,390	1,413	1,433	1,489	1,544	1,591
計	4,331	4,468	4,525	4,640	4,743	4,805
• 供 給						
O P E C (A)	1,605	1,833	1,748	1,933	2,076	2,147
非 O P E C	2,482	2,455	2,438	2,434	2,421	2,408
其 他	244	180	337	271	246	250
計(B)	4,331	4,468	4,523	4,640	4,743	4,805
OPEC占有率(A/B, %)	37.1	41.0	38.6	41.7 /	43.8	44.7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987.

□ 石油短信 □

우려되는 제3차 오일쇼크論

제81차 OPEC 총회에서는 固定油價의 유지 및 생산감축을 계속할 것에 합의했는데,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제3차 오일쇼크論」이 대두되고 있다.

美國의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 새로운 석유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봄부터였다. 5월의 IEA 閣僚理事會의 성명서는 「1990년대 중반에 세계의 에너지需給은 逼迫度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전해진 美國의 조사결과(에너지 關聯企業의 경영자·기술자 600명 대상)에 따르면, 回答者중 61%가 「'93년까지 石油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메이저인 Chevron의 컴퓨터 예측은 「'92년에 석유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石油危機 예측의 最大論據는 美國의 석유생산 침체 및 수입 증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油價는 OPEC의 協調減産에 의해 18\$/B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한때 10\$/B 이하를 기록한 油價하락은, 美國內 石油의 生産·개발의욕을 감퇴시켰으며 소비증대 및 수출확대를 초래했던 것이다.

美國의 原油 및 석유제품 수입은 작년 1년간에 약 120만b/d 증가하여 600만b/d를 돌파하였다. 한편, 國內 原

油生産은 평균 867만b/d로서 전년보다 30만b/d 하회하였으며 이대로 가면 '90년대 전반에는 수입량의 1,000만b/d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美國內 石油危機論의 배경으로는, 수입의존도가 40%를 넘고 계속 높아짐에 따라 대두되는 國家安全保障上的 우려를 들 수 있다. 또한 美國의 석유 수요 및 수입증가가 國際油價上昇을 부추킨다는 점에서 美國에 국한된 문제라고 도외시킬 수는 없다.

美國의 수입증대로 國際石油市場의 需給 밸런스가 크게 허물어지면 日本 등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輸入 原油에 의존하고 있는 開途國의 債務問題도 재현될 것이다.

個人貯蓄率이 저조하고 소비성향이 강한 美國民의 생활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호텔 前에너지 長官은 「우리들의 휘발유를 몰마시듯이 계속 많이 사용하면 2~5년후에는 注油所에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美國이 石油生産 확대 및 소비절약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제3차 오일쇼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